

2021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우수사례집

스마트팜 청년 창업

꿈을 이루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스마트팜 청년 창업

꿈을 이루다!



오이농장



서원상

전라북도
청년창업 보육센터

04

토마토농장



윤성호

전라북도
청년창업 보육센터

10

유럽형 샐러드 상추농장



류희경

전라북도
청년창업 보육센터

18

딸기농장



김창섭

전라남도
청년창업 보육센터

24

방울토마토농장



김중범

전라북도
청년창업 보육센터

30

오이농장



변진우

경상남도
청년창업 보육센터

36

토마토농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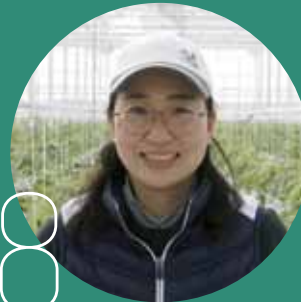


정승훈

경상남도
청년창업 보육센터

42

딸기농장



진주리

전라북도
청년창업 보육센터

48

오이농장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충남 보령시 청라면은 조용한 시골마을이다.
그런 청라면이 지금 젊은 청년들의 열정으로 들썩이고 있다.
오이를 전문으로 재배하고 연구하는
그린몬스터즈 서원상 대표와 그의 친구들이 주인공이다.

교육기관 _ 전라북도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기간 _ 2018년 04월 ~ 2019년 12월
주소 _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원모루길 41-29
주요품목 _ 백다다기, 취청, 미니오이
농장운영현황 _ 자가 / 시설면적 약 1,400평

함께 그리는 녹색 꿈 그린몬스터즈 서원상 대표



잘나가던 샐러리맨이 Green 꿈

그린몬스터즈 서원상 대표는 소위 '잘나가던 샐러리맨'이었다. 그런 그가 돌연 농업에 관심을 갖고 뛰어들 계기는 '더 잘 나갈 수 있는 농업인으로 변신'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리고 마침 그 시점에 '스마트팜 청년창업 교육센터' 사업에 참여했고, 그 계기를 바탕으로 창업에 필요한 여러 요소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런 그가 교육 수료 후 본격적인 창업을 준비하면서 선택한 재배 작물은 '미니 오이'로 스마트팜 교육과정 중 미니 오이에 대한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이에 대해 그는 "스마트팜 교육 과정에서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등은 이미 많은 분들이 재배하고 있는 대중적인 작물임을 알게 됐고, 따라서 저는 재배가 까다롭기는 하나 보다 경쟁력 있는 오이를 주 작목으로 선택했습니다"라며 다시 한번 확신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오이의 경우 작업량이 많고 재배하기 어려움이 많아 노지뿐만 아니라 시설에서도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서원상 대표는 시설오이 재배가 그린몬스터즈의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 간편식, 밀키트 시장, 식단 관리 시장들이 점차 커져가는 상황으로 향후 자연스럽게 미니 오이에 대한 수요도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니 오이는 일반 오이와 비교해 가시가 없고 아삭한 식감과 단맛이 있어 간편하게 과일처럼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청년농부로 변신을 준비하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팜 시설은 3,000~6,000평 규모의 유리온실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영농기반이 전무했던 서원상 대표는 자신의 현실을 고려해 1,400평 규모의 경질판 온실을 선택했다. 농장 운영을 위한 스마트팜 시설은 교육을 통해 얻은 자격으로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활용했으며, 운영비는 과거에 모아두었던 자금을 활용 중이다. 다만 농지의 구입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마련했다고.

한편 사업에 지원했던 교육 초기만 해도 수료 후 농장 준비까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던 서원상 대표는, 스마트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에 따라 장기적 계획을 통해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을 알게 됐다. 따라서 교육기간 중 농장 부지를 우선 매입했고, 교육 수료 후에는 곧바로 스마트팜 농장에 취업하는 등 청년 농부로의 변신을 차근차근 준비했다. 그리고 최첨단 스마트팜 농장에 취업하면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연구소장을 겸하면서 농업 관련 정부 연구과제도 2건을 수행했고, 연구책임자로 공모전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인 대상을 받는 쾌거를 일궈내기도 했다.

초보 농부로서는 꽤나 멋진 결과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는 농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했던 대출을 받는 과정 중 비재무평가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결국은 현장에 답이 있더라고요!

그린몬스터즈 서원상 대표는 "보육과정부터 스마트 팜을 운영하기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이 어느 하나 중요치 않은 것이 없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몸소 경험하고 배운 것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말한다. 결국 현장에 답이 있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이러한 서원상 대표에게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그 첫 번째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인건비와 원료비 상승이고 두 번째는 첫 작기인 여름철의 경우 생산량 대비 판로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특히 제값을 받지 못해 자신의 땀으로 키워낸 오이를 산지 폐기했던 경험은 지금도 아찔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서원상 대표는 "저와 함께해 주고 있는 농장 팀원들이 있고, 그것이 가장 큰 경쟁력으로써 오롯이 청년들이 스마트팜의 주체가 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히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또한 "아직 초기여서 어려움이 많지만 서로가 의기투합해 향후 농장 팀원들이 함께 이끌어갈 미래 스마트 팜의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 오른다"라는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시작에 불과하지만 더 큰 열매 맺을 수 있을 것



현재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린몬스터즈를 운영하면서 얻은 성과를 굳이 꼽으라면 아직은 미약한 부분이 더 많은 현실이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연 매출 4억 + 돌파가 가능하다는 점을 팀원들과 분석해 확인했고, 코로나19 이전으로 시장 상황이 돌아갈 경우 목표한 매출을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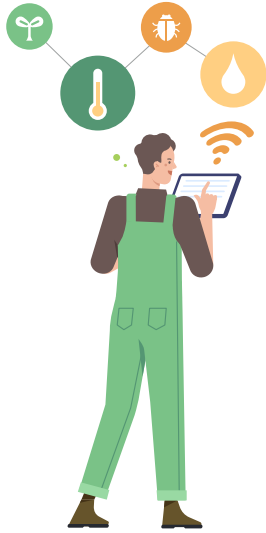
한편 그린몬스터즈는 현재 보령시와 협력해 농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스마트 팜에 관심 있는 이들을 위해 스마트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어 향후 경제적인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둘 다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전 직장에서 오이를 해외로 수출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개발한 스마트 육묘시스템을 보완 및 고도화하여 해외 스마트 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스마트팜 기술이 확산되면 전방 산업인 육묘산업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판단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발상은 스마트 팜에 정식하기 적합한 모종을 생산할 수 있는 '과채류 전용 스마트 육묘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육묘장에서 받아들인 모종들에게서 쉽게 발생하던 병충해와 바이러스도 억제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까지 창출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장기 재배로 운영해야 하는 스마트팜 농장 입장에서 초기에 받은 병충해 및 바이러스 피해는 큰 문제가 되기도 한다.

현재 그린몬스터즈 농장에서 재배되는 오이는 모두 스마트 육묘시스템에서 생산된 모종으로 정식했으며, 예상했던 것처럼 초기 병충해 바이러스 피해를 최소화했고, 수확 시기도 2~3일 정도 앞당길 수 있었다. 이에 서원상 대표는 향후 필요한 곳에 스마트 육묘시스템을 보급하기 위해 모듈화 작업 및 매뉴얼도 준비하고 있다.



내일을 심는 그린몬스터즈 만들 것



그린몬스터즈 서원상 대표는 자신의 팀원들과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스마트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또 이를 위해 크게 4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첫 번째는 소비자들이 오이를 떠올렸을 때 '그린몬스터즈'를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도록 오이 전문가가 되는 것, 다음 두 번째는 스마트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정보들을 정량적으로 수집하고 데이터화하여, 농업 분야에 보다 다양한 직업군을 개발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스마트 팜에 관심을 갖고 진입할 수 있도록 후배 청년 농들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국가가 선도하는 차원의 농업도 필요하겠으나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연구와 개발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의 주춧돌이 되는 것이다.



그린몬스터즈 서원상 대표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 참여하게 된 사유는?

A 2017년 하반기에 평생 일자리로 농업 분야를 결정하고 농업 관련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2018년도부터 청년들을 위한 농업 분야 지원 사업들이 새롭게 시작되었고, 그중에서 청년후계농 영농정책 지원 사업과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을 신청, 모두 합격하게 되는 운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수료하면 수료생에게 스마트팜 관련해서 최대 30억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자격을 준다는 이야기에 혹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이 진행되면 될수록 '대출받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팜에서 진입하게 되면 평생 일자리로써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것 가능성을 볼 수 있었고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었지만, 미래를 봤을 때 꼭 도전하고 성공시킬 수 있으니 도전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Q 스마트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A 15년도에 회사 퇴사 후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분야를 찾던 중 창업 준비 중인 지인을 통해 스마트팜 분야를 접하게 되었으며, 특히 스마트팜 분야에는 작물이 생육하기 좋은 환경을 센싱하고 제어하는 것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공학적인 역량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부분도 깨달았습니다. 스마트 팜이 확산하고 정착되는 초기 단계라 힘든 부분은 많이 있으나, 접하면 접할수록 매력이 넘치는 산업이라는 느끼고 있습니다.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특별한 추억은?

A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그린 몬스터즈를 함께 이끌어가고 있는 동반자 3명을 만난 것이 가장 특별한 인연이고 추억인데, 스마트 팜을 준비하는 약 4년간이 군대 생활, 결혼 생활 때보다 더 끈끈하게 뭉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경영 실습 기간 중 유튜브 채널인 '장성규의 워크맨' 촬영을 하게 된 경험입니다. 당시 스마트 팜을 준비하는 단계여서 주변 지인들이 제가 뭐하고 지내는지 잘 모르는 시기였습니다. 저 또한, 380만 구독자를 보유한 워크맨의 명성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촬영을 진행했는데, 그 이후의 파급력은 어마했습니다.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통해 얻은 결실이 있다면?

A 이론교육을 통해 기계공학에 대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저의 역량을 스마트팜 기술과 연결시킬 수 있었으며,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주신 강사님들의 교육을 쉽게 만나 볼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이와 함께 약 2년 이상을 실제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 팜에서 실습하고, 운영의 기회를 준 경영 실습과정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안정적으로 스마트 팜을 준비할 수 있었던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Q 청년 농업인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귀띔해주고 싶은 tip이 있다면?

A 교육 중에 강사님들께서 여러 가지 조언을 주시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바로 실행했으면 좋겠고, 교육 중에 교육생들끼리 스마트 팜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중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면 가감 없이 농장 대표님, 강사님, 보육 센터 사업 관계자분들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다 섬세하고 구체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목표를 설정한다면, 스마트팜 준비과정과 실제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도 잘 헤쳐나갈 수 있고 또, 매너리즘에 빠지는 일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 과정에서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A 보육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와 교육기관에서는 1년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철저히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 수료 후에도 사후 관리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좀 더 빠르게 대출을 실행하여 실제 스마트팜 창업이 가능하도록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주는 것도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대출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에 스마트팜 창업하는 길 외에도 스마트 팜과 관련된 다양한 직군의 회사로 취업할 수 있는 길도 교육과정 중 안내되고 홍보되면 좋겠습니다. 교육생과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생은 당당하게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배우고, 업체는 교육생 고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마토농장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완속토마토를 주 재배 작목으로 농업에 뛰어난
윤성호 대표는 농업을 통해 미래를 꿈꾸고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농업인이다.
이에 자신만의 철학으로 스마트 팜을 운영하고 있는
그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교육기관 _ 전라북도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기간 _ 2019년 9월 ~ 2021년 6월
주소 _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430 경영실습임대농장 3동
주요품목 _ 완속로마토
농장운영현황 _ 지자체 임대 / 480평

연구하는 농업인을 꿈꾸는
긍정 청년
 윤성호 대표



지하수개발사업 하며 농업에 대한 관심 키워

“농업은 현재도 그렇지만 다
 가을 미래엔 없어선 안 될 주요
 산업으로써, 그 중요성이 더욱 주
 목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며, 학
 신에 찬 목소리로 농업의 가능성을 강
 조하는 윤성호 대표는 미래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등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
 는 열혈 청년농업인이다.



이런 그가 농업에서 희망을 발견한 결정적 계기는 예
 전 지하수 개발사업을 하던 때로, 동분서주 현장을 누비며 농업인들과
 만남을 지속하면서부터다. 그리고 그 계기를 통해 점차 농업에 대한 이해도
 가 깊어졌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과감하게 자신의 미
 래를 걸었다.

그렇게 더 큰 꿈을 위해 농업인으로 변신을 꾀한 윤성호 대표는 “지하수
 개발사업을 하면서 경험했던 전문 기술력에,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를 통해 얻게 된 깊은 지식이 더해져 보다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어 보인다.



농업으로 내일을 짓다.



윤성호 대표에게 20개월의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는 온전한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었다. 특히 잘 짜인 커리큘럼에 따른 이론교육과 다양한 현장실습은 농업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경험이 되어주었고, 경영형 실습을 마친 뒤 임대 농장에 입주할 수 있게 된 행운은 향후 전문 농업인으로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고. 한편 그가 직접 경험한 보육사업 중 가장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현장실습을 꼽았는데, 젊은 초보 농업인들에게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어 보다 효과적인 실습을 위한 자신만의 노하우도 귀땀했는데, 첫 번째는 오랜 영농 경력이 있는 농장을 선택하라는 것으로 이는 안정적으로 대출을 상환하며 영농생활을 영위해온 만큼 노하우가 축적되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다음 두 번째는 주변에서 인정하는 농장을 선택할 것과 세 번째는 귀농 경험이 있는 농장을 우선 고려하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쌓아온 소중한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습생이 아닌 '전문 농업인의 마음가짐'으로 교육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윤성호 대표는 "당시 저는 실습생이 아닌 전문 농업인이라고 스스로 마인드컨트롤을 했고, 또 늘 농장주로서 내 농장을 운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으로 실습에 임했습니다."라며 소중한 경험을 나눴다.

임대농장 운영으로 독립경영의 꿈을 이룬다.

현재 윤성호 대표는 군산시의 임대 농장에 입주 중이며, 주 재배 작물은 토마토다. 그가 임대 농장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혁신 벨리의 임대형 스마트 팜이 착공되지 않은 시기에 앞으로의 진로 방향을 고민하던 중 군산시에서 스마트팜 임대 농장을 추진 중에 있다는 기사를 접한 후다.

이는 그에게 꽤 좋은 기회였다. 특히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에서 임대 농장을 추진한다고 하니 망설일 필요가 없었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거리라 더욱 좋았다. 그렇게 그는 지난 2020년 9월 '군산 경영 실습 임대 농장'이 준공되면서 마침내 꿈꾸던 독립 경영을 시작할 수 있었다.

군산 경영 실습 임대 농장은 직접 투자가 아닌 간접 투자 형태로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팜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지원한다. 이를 통해 윤성호 대표는 목돈 지출을 줄일 수 있었고, 소모품, 종묘비 등과 같은 재배에 관련된 비용은 실습비와 잉여자금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독립경영은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고, 이제는 완전한 독립을 준비하며 행복한 내일을 꿈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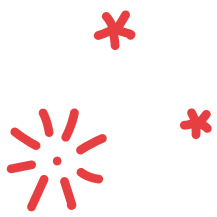


고난도 있었지만 괜찮아!

윤성호 대표는 순탄할 것만 같았던 농장 운영 중 경험한 몇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그중 하나가 농업에 종사하면서 경험한 자연의 위대함이다. 인간의 힘으로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 스마트 팜을 운영하고 있지만 긴 한파와 폭설에 눈과 얼음이 하우스 안으로 들어온 일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데이터를 축적하여 대비하고 예측할 수 있는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음은 시설 부족과 관련한 부분이다. 광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고 열매를 맺는 식물의 특성상 이산화탄소가 필수적인데, 이산화탄소 발생기 설치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세력이 약화되는 경험을 했다. 이 경험을 통해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착과 부하를 줄이며, 에너지로 작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도 시설이 갑작스럽게 고장 나 곤란한 경우를 겪기도 했는데, 거의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못하게 되었던 적도 있었다. 그래서 그는 보다 세밀하고 철저한 관리를 위해 매일 시설을 체크하고 일지를 적는 등 자신만의 관리방법을 세워 진행해 가고 있다.



안정적 재배가 가능한 토마토를 선택

윤성호 대표가 토마토를 자신의 주 재배작물로 선택한 이유는 타 작물과 달리 1년 365일 안정적으로 장기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판로가 확보되어 있던 것도 토마토를 선택한 큰 이유가 되었다. 그리고 시설 확장과 품목 대체 가능성도 놓칠 수 없는데, 온실을 확장할 때 토마토가 타 작물 대비 용이하다는 판단도 있었고, 토마토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도 보다 손쉽게 타 작물로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풀어 설명하면 토마토를 기준으로 온실을 설계할 경우 오이는 물론 딸기나 엽채류까지도 재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현재의 임대 농장을 다양한 실험실로 활용 중이며, 이 임대 농장을 '인큐베이터'라고 지칭한다. 해당 임대 농장은 최대 3년이 계약 기간으로, 독립에 필요한 준비를 사전에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온실의 규모가 1인이 통제가 가능한 범위이기 때문에 도전적인 방법 혹은 안정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다. 또 정해진 기간 동안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정보들을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보완된 온실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런 그에게 멘토로서 늘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린팜 아리올 영농조합'의 백문신 대표이다.

백문신 대표는 스마트팜 1세대로 현장실습을 통하여 많은 지식과 노하우를 윤성호 대표에게 전달해 준 고마운 사람이다. 윤성호 대표는 그를 통해 스마트팜 환경제어 프로그램 사용법을 구체적으로 배웠고 농업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을 여저히 배우고 소통하고 있다. 또한 전문 경영인이 되었을 때 현장에서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지내야 하는지 등 자신의 노하우를 조건 없이 나누줌으로써 윤 대표가 성장하는데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군산 최초의 유리온실 건축할 것!

윤성호 대표 농장에 가장 핵심이 되는 스마트팜 요소는 크게 '데이터 축적 및 분석', '경험이 아닌 데이터를 사용한 재배', '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예측' 기술이다. 여기서 데이터 축적 및 분석은 환경제어에 대한 부분으로 온실 내부환경을 통제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분 단위, 시간 단위, 일, 주 단위로 데이터가 축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축적된 데이터를 가공하고 사용함으로써 재배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다음 경험이 아닌 데이터를 사용한 재배와 관련해서는 작물을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생육조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작물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마지막 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예측은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작물, 그중에서도 생산량에 대해서도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계획대로 작기가 움직이고 있는 크로스 체크가 가능해 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과 경험을 바탕으로 군산 최초의 유리온실을 짓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는 윤성호 대표는 "스마트 팜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임대 농장에서 경험한 장단점을 토대로 보다 복합적으로 분석한 후 온실을 지으려고 합니다. 토마토만을 위한 온실이 아니라 다양한 작물로 전환이 가능한 멀티 온실을 지을 계획입니다."라며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이런 그의 또 다른 목표 중 하나는 농업 마이스터 과정을 수료하는 것이다. 현재 윤성호 대표는 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에 재학 중이지만 보다 깊이 있는 재배지식을 쌓기 위해 농업 마이스터 대학에 입학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체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와 농법을 적용한 도전적인 농업을 하고자 한다. 이 밖에 '직관적인 센서 도입'도 그가 세운 계획들 중 중요한 부분으로 보조 센서뿐 아니라 작물을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직경 센서, 수액 센서, 무게센서 등을 도입해 작물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을 통해 미래를 꿈꾸고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





윤성호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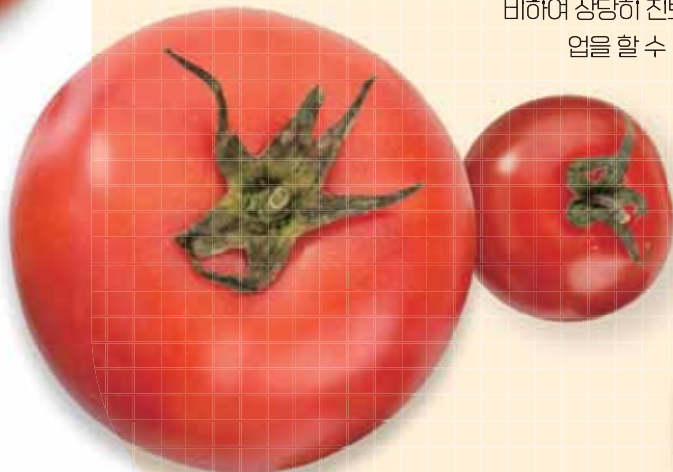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 참여하면서 전북 보육센터(전북 농식품 인력개발원)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A 전북 농식품 인력개발원은 삼락(三樂) 즉 보람찬 농업농민, 스마트 농생명산업, 사람 찾는 농촌 어촌이라는 키워드 아래 다양한 교육 사업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농업 마이스터대학을 운영할 정도로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요. 이런 기관에서 제공하는 이론 교육은 교육생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인력개발원의 실용농업교육센터에 있는 스마트 팜을 활용하여 농업 현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스마트 팜의 시설 및 기기를 직접 오감을 통해 그 운용 방식을 알 수 있고, 작물마다의 재배 방식을 직접 경험하여 재배 능력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 교육을 통해 실시간으로 작물 생육 상태를 확인하여 외부 요인인 계절과 날씨, 내부 요인인 관수 및 수확 등에 따라서 작물의 변화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보다 쉽게 작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습니다. 이 밖에 전북 농식품 인력개발원이 위치한 김제시를 비롯하여 전북 전역에 퍼진 스마트팜 선도농가들은 대부분 해당 기관과 인연이 있었고, 전북 농식품 인력개발원에 요청을 하면 다양한 선도 농가의 정보 및 현장 방문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있어서 전북 보육센터를 선택하게 하였습니다.

Q 스마트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다면?

A 예전에 지하수 개발사업을 하면서 농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였습니다. 대부분 노자 및 과수원에 종사하는 농업인이었는데, 그들과 일하다 보니 시선을 끄는 거대한 비닐하우스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모습에 호기심이 생겨 스마트 팜의 지하수 개발사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마트 팜을 하고 있는 농업인 대표님들과 대화하며 스마트팜 시설과 비전 등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 스마트 팜이 온실 환경에 대해서 완전하진 않지만 기성 농업에 비하여 상당히 진보된 기술농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에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특별한 추억이 있다면?

A 농업에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교육 자체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새로운 지식 그리고 기존 관념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재배 방법이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분야 교육을 접했을 때에는 비로소 스마트 팜을 알게 된 것 같아 너무 기뻐했습니다. 또 다양한 첨단 유리온실 현장 방문은 농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세밀한 재배방식 그리고 정밀한 환경제어를 위한 시스템과 설비에 대한 교육들은 앞으로 제가 농업인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통해 얻은 결실 또는 특별히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면?

A 현장 경험은 현재 농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매우 큰 결실입니다. 상당 부분의 시행착오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이 되어주었습니다. 현장에서의 경험으로 온실의 다양한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작업의 효율성과 작물의 이해도가 더 깊어졌습니다. 아울러 이론교육이 농업의 기초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면 현장실습은 그 토대 위에서 작물 재배 지식을 현장에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또한 실제 작물에게 적용하여 작물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Q 청년 농업인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귀띔해주고 싶은 tip이 있다면?

A 단순히 매출을 통하여 나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창출하고 싶은 매출과 그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 그리고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수익이 본인이 원했던 수익이 맞는지,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하여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 게 좋을지 등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 또한 산업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열정이나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하수 개발을 하며 귀농인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준비 부족이었습니다. 후계농 대출이나 보조사업이 있다고 해서 농업 분야에 뛰어들었다가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봤고, 심한 경우에는 토지 혹은 농장의 주인이 바뀐 경우도 봤습니다.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에는 보다 더 신중해야 합니다.

Q 보육교육 과정에서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가장 없이 의견 부탁드립니다.

A 작목별로 모여서 애로사항과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나아가 작목별 현장 교육을 강화하여 청년 농업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전기 설비에 대한 교육 부분이 있는데 모든 스마트 팜은 전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양한 전자기기와 전기를 이용한 설비, 하다못해 전동끼치기도 전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안전 교육 및 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교육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유럽형 샐러드 상추농장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중국에서 비정부기구인 NGO 단체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농촌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고, 그로 인해 농업과 첫 인연을 맺게 되었다는
류희경 대표는 농산업을 미래의 중요 산업임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과 잠재력을 동시에
발견한 뒤 농업에 뛰어든 겁 없는 초보 농사꾼이다.

교육기관 _ 전라북도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기간 _ 2020년 10월 ~ 2022년 6월

주소 _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황로로 1089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 농장

주요품목 _ 유럽형 샐러드 상추

농장운영현황 _ 임대 30개월 / 시설면적 1,500평(3인 1조, 1인 500평)

NGO 단체 대표에서 AI 연구하는 농업인까지
매력 농업인
류희경 대표가 부르는 녹색 희망가



환경전문가가 농업에 눈뜨다

30대 초보 청년 농사꾼인 류희경 대표는 농업인이 되기 전 환경전문가로 국제무대에서 활동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로, 3세 때 부모님을 따라 인도네시아로 건너가 성장한 교포 출신이기도 하다. 이후 서울대 조경학과에 입학했고 대학원에서 생태조경학을 전공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인식하게 된다.

이후 석사학위를 취득한 류희경 대표는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글로벌 녹색성장 기구 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에 들어가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여기서 그는 주로 개도국들과 지속 가능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업무를 맡았으며,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터 폐기물 관리, 교통 등 개도국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 후 한국수출입은행에 취업해 인도네시아와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 업무를 담당해 수행했고, 이어 서울대 내 한국기후변화 대응전략 연구소로 자리를 옮겨 차근차근 경력을 쌓으며 인연을 맺게 된 중국인 야생동물 보호 운동가와 지린성 연변에서 야생 호랑이 보호를 위한 비정부기구(NGO)를 공동 설립해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귀국을 결심했고, 한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분야로 시선을 돌린 곳이 바로 농업이었다.

기후변화 시대에 인류가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 농업혁신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초보 농업인이 벌인 대형사고



류희경 대표는 국제 대회인 '제3회 인공지능(AI) 온실자동화 대회' 선발전 본선에서 1등의 영예를 안는 쾌거를 달성했다. 네덜란드 Wageningen 대학교와 Tencent가 주최하는 국제 온실 자동화 대회로, 매년 작물을 바꾸어 진행한다. 그가 대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스마트팜 온실 환경제어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팀원들과 함께 개발하면서 참가를 결심하게 되었다.

대회의 취지는 증가하는 세계 인구를 위해 식량안보와 안전 문제가 커지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스나 전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온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자동제어함으로써 온실의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 대회에는 상추 재배를 놓고 전 세계에서 실력을 검증받은 17개 팀이 참여했고, 류희경 대표가 이끈 팀이 1위를 차지했다. 불과 2년여라는 짧은 농업 경력을 가진 초보 농사꾼이 벌인 대형 사고다.

한편 그는 이 같은 성과가 모두 팀원들 덕이라며 공을 돌린다. 그와 함께 했던 팀원은 머신러닝과 딥러닝 전문가인 경기과기대 이우람 교수, 로봇틱스 전문가인 Motion2AI 백승민 매니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유니버설 로봇 성황현 연구원, 풀 스택 프로그래머인 낮은 집 작업실 임창진 대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전자공학과 김민우 학생,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 최연규 박사까지 총 7명이다.

스마트팜과 시가 융합한 진보된 농업 구현



류희경 대표가 실험실로 운영 중인 농장은 전라북도 농식품 인력개발원 내 위치한 옆 채소 온실로 유럽형 샐러드가 초록의 싱그러운 자태를 뽐내며 자라고 있다. 그리고 작물들의 위와 좌우로 낮선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네덜란드 Sigrow 사에서 만든 센서들로 식물의 증산작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 이 센서를 통해 식물의 기공 개폐 여부를 관찰하고 광합성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온실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처럼 남들과 다른 실험적인 농업을 구현 중인 류희경 대표는 온실 작물에 요구되는 다양한 환경을 보다 효과적이고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온실 제어 알고리즘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작물과 온실 모니터링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작물이 특정 환경에서 어떤 생육 기작을 보이는지를 관찰하고 그 데

이터를 이용한 자동 온실 제어 기술 개발에도 한창이다.”라는 희망 메시지를 전했다.

본 기술은 그가 팀장으로 활동 중인 크로프트(Croft) 팀원들과 함께 개발 중으로 농촌의 고령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류희경 대표는 “국내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겪고 있는 농촌 고령화 문제와 기후변화로 인해 직면한 고비용 구조로 전환 중인 에너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로 판단된다.”면서 “그렇기에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더 나은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라고 덧붙여 설명한다.

스마트팜으로 위기를 기회로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 농산업을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노지 농업의 생산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수자원의 고갈까지 심화되면서 현재와 같은 농법으로는 더 이상 급증하는 인구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에 류희경 대표는 “기후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갖가지 위기를 감당하기에 벽찰 만큼 우리 농촌은 심각한 고령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산재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키가 스마트 팜임을 직시하고 스마트 팜이 농산업 전반에 온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라는 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농촌에 젊은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며 귀땀했는데,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젊은 층의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그의 또 다른 계획 중 하나다. 만약 그의 계획이 실현된다면 일정 규모의 단지를 이룰 수 있고, 이는 다시 다양한 작물을 연중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부족한 노동력의 해결과 개별 농가가 마련하기 어려운 저온 창고와 선별장 등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수월하게 농산물 판매까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이에 그는 “스마트 팜으로 생산된 농산물은 품질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중으로 일정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꾸준히 납품할 수 있어, 적절한 인프라만 수반된다면 스마트팜 단지는 농촌과 농업인 모두에게 큰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힘주어 말한다.

이같이 다양한 포부와 농업에 대한 진정성으로 뚝뚝 땀 흘린 그에게도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있다. 그 첫 번째는 온실 자동화 대



회에서 괄목할 성적을 내고 온실 자동화 기술 개발에 꾸준히 매진해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곧 입주하게 될 김제 스마트팜 혁신 벨리의 임대형 농장에서 셀러드 상추 농사를 지어보며 자신의 농장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크로프트에서 개발한 온실 자동화 기술을 자신의 농장에 적용해 완성시킨 뒤 후배 영농인들이 큰 어려움 없이 농업에 매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작은 체구의 그이지만 그가 꾸는 꿈만 큼은 결코 작지 않다는 생각이다.



류희경 대표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 참여하게 된 사유는?

A 스마트 팜으로 창농을 계획하고 준비하다 보니 스마트 팜이 기술적 또 재정적인 면에서 장벽이 높다고 판단되어 이 두 가지를 철저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였습니다. 20개월간의 이론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필요한 스마트팜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보육사업 수수료 후 타당한 사업계획서만 있다면 청년창업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통해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스마트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A NGO에서 근무할 당시, 환경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개발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하다 본격적으로 농업에 입문하게 되었고, 농산업에서의 청년들의 빈자리와 함께 농업의 큰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팜이라면 기존의 힘든 노지 농사가 아닌 자원도 절약하고 사업성도 뛰어난 농장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

2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특별한 추억은?

A 아무래도 주변에 농업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는데,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을 통해 비슷한 생각과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여러 생각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특별했습니다. 여기서 만난 동기생들과 인연들은 앞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제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통해 얻은 결실이 있다면?

A 보육센터를 통해 얻은 큰 결실 중 하나는 농업에 관련하여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입니다. 단순히 스마트팜 교육기관으로서가 아닌 청년들이 창업·창업을 하며 겪을 어려운 부분들을 깊이 공감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찾아주는 컨설팅 기관과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귀농하고부터 꾸준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보육센터를 통해 특별히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면, 이번 스마트팜 혁신 밸리 건설 과정을 겪으면서 스마트 농장 건설과 관련하여 앞서 확인하고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을 미리 익혀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농장을 지을 때는 비교적 수월할 것 같습니다.

Q 청년 농업인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귀띔해주고 싶은 tip이 있다면?

A 청년 농업인들 중에는 저처럼 농업과는 관련이 없는 직종에서 활동을 하다가 농업으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은 생각보다 잠재력도 크고 스펙트럼이 넓은 산업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산업입니다 (물론 스마트 팜도 마찬가지고요). 성공 사례나 주변 농업인들이 많이 하는 방식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과 잘 접목시켜 본인만의 방식을 찾는 것이 오랫동안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 과정에서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A 스마트팜 기술로 크게 혜택을 보는 분야 중 하나가 축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농촌에서 축사가 기피 시설로 분류되고 환경오염 문제로 지적받는 현 실정이 안타깝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 축사라고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스마트팜 보육센터에서도 스마트 축사 관련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딸기농장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광산구



후계농이자 청창농인 김창섭 대표의 일터는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제법 규모가 있는 딸기농장으로,
그의 안내를 받아 들어선 농장 안에는 잘 정돈된 시설과
초록의 잎들 사이로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있는 붉은 딸기들이 먼저 눈에 띈다.
그가 운영하는 농장의 첫인상이다.

교육기관 _ 전라남도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기간 _ 2018년 4월 ~ 2020년 12월
주소 _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동 840-1
주요품목 _ 딸기
농장운영현황 _ 자가 / 약 1,400평

뽕게 익어가는 딸기처럼
열정을 다해 도전하는
 김창섭 대표



꿈꿀 수 있는 지금 농촌에 도전하세요

푸른 잎들 사이로 아기들의 보안
 볼을 닮은 하얀 딸기 꽃과 제법 농
 익은 딸기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고 잘 정돈된 시설들은 김창섭
 대표의 성격을 대변하는 듯 반듯하
 게 잘 정돈되어 있다. 김창섭 대표는
 청년 스마트팜 보육센터 17기생으로 후계
 농이자 청창농으로 지역과 농업에 대한 이
 해도가 높아 다소 빠른 정착에 유리한 조건
 을 가졌다.

이런 그는 우리 농산업을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다. 그 이
 유 중 하나는 점차 대형화되어감에 따른 소득의 증대이고, 다음은 우리 농
 산업이 기계화와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으로 탈바꿈함으로써 노동의 강도
 가 줄어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그는 “꿈을 꾸는 청년이라면 농촌
 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지금이 기회입니다.”라며 젊은 청창농들
 의 도전을 독려했다.

물론 위기로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 있는데 기후변화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농업인들 스스로가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을 함으로써 충분히 극
 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런 김창섭 대표가 자신의 농장을 운영
 함에 있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판로처의 확보와 품종의 차별화다.
 여기에 보다 건강하게 작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재배의 모든 과정을 보다
 세밀히 파악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대처를 해주는 것도 그만의 노하우다.



근면함과 노련함으로 일궈낸 오늘

김창섭 대표는 농장 시설을 짓기 전 다양한 온실 형태를 견학하고 교수님들을 비롯한 동기생들과 끊임없이 정보를 교환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온실 시공업자와의 유대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준비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했다. "근면과 기술로 불가능한 것은 거의 없다. 위대한 작품은 힘이 아닌, 인내로 일궈진다."라고 말한 영국의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사무엘 존슨(Samuel Johnson)의 명언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한편 온실을 시공하면서 경험한 자신만의 노하우와 원칙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다행히 그의 경우엔 후계자금 3억 원과 후계농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토지 덕분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상당 부분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런 김창섭 대표는 후배 청년농들에게 "지금에 맞는 시설의 시공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면서 "보조 사업에 기댄 채 손을 놓고 있다 보면, 작물을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농장 운영 전반에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길 바란다."라고 조언한다.



실패와 희망 사이

김창섭 대표가 자신의 주 작물을 딸기로 선택한 이유는 매우 명확하고 분명한데, 비농사를 겸하고 있는 그에게 공백기인 겨울철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작물이 딸기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사랑하는 과일이라는 부분도 한몫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2020년 12월 4일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고대했던 첫 시장 출하를 하게 되었으나, 10박스에 불과한 판매 결과를 냈다. 수익은 고작 187,680원에 불과했고, 난감함을 넘어 좌절에 가까운 심정이었다. 실패 이유는 작기 중 2월에 찾아온 곰팡이 피해 때문으로 수확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기에 앞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작물을 보는 눈을 키우는 등 다음 해를 기다렸다. 실패와 희망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그의 신념과篤심이 빛을 발한 순간이다.

이에 그는 "무엇보다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고 도시의 삶에 지들어 우울한 날을 보내던 나에게 선뜻 시골살이를 제안해 준 아내의 표정이 지금도 선하다"면서 큰 버팀목이 되어 준 가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러한 그의 진정성과 근면성 때문인지 그의 아들은 스스로 후계 농을 자처해 김창섭 대표의 대를 잇겠다고 선언한 뒤 현재 한국농수산대학 원예과에 수시 합격해 뜻을 펼칠 준비 중에 있다고.



농업인 공감입니다

한편 그는 “농업 현장의 현실과 괴리가 있는 농산물의 가격 책정으로 시름하는 농업인들을 위해, 국민들과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우리 농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또 이를 위해 농산물의 유통 체계 변화가 필요하고 생산자 개인보다는 단체를 구성해 소비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

첨언하면 기존 작목반이나 법인의 불공정성을 개선하여 만든 새로운 형태의 단체, 즉 개인이지만 단체를 형성하여 생산물의 질과 안전성을 부담하여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언론을 통해 비치는 농업인들의 부정적인 모습도 소비자와의 공감대 형성 부족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김창섭 대표는 지적한다. “언론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농산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농가에 지원되는 정부의 보상을 어르신들은 당연히 여기지만, 20~50세대는 전혀 반대 의견을 내놓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대부분이다.”라며 자신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보충해 설명한다. “또 이 같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공감대 형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면서 “우리 농업인들 스스로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다.





김창섭 대표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 참여하게 된 사유는?

A 눈에 물을 대어 벼농사를 짓는 수도작의 면적 확대의 한계점을 느껴 새로운 작물을 생각하다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Q 스마트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A 근본적으로 노동집약적인 곳이 농업이고 이곳에서 온실 농사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복합 환경제어를 통한 스마트 팜을 하게 될 경우 노동력 절감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조수입이 높다는 결론을 내려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특별한 추억은?

A 보육사업을 통해 만나게 된 동기생들과 교수님들을 알게 되었다는 부분이 가장 큰 경험이고 추억으로 남습니다. 물론 가장 큰 수확이기도 하고요.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통해 얻은 결실이 있다면?

A 이전부터 농업에 종사해왔지만 원예작물에 대한 지식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총 2년 이 넘는 교육기간 동안 많은 이론과 작물의 생육관리 등 보다 깊이 있는 교육을 받고 경험할 수 있었다는 부분이 가장 큰 결실 중 하나입니다.

Q 청년 농업인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귀띔해주고 싶은 tip이 있다면?

A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로 무작정 농업에 뛰어드는 것은 커다란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임대 농장이나 경영 실습 등을 통해 최소 1년이라도 농사를 경험해 보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농업은 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준비하고 경험하길 바랍니다. 이 밖에 자금계획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 과정에서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A 17생이었던 저의 경우와 달리 현재는 보완과 수정이 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교육생 때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현장실습과정을 꼭 수입이 큰 곳이 아닌 작은 곳이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교육생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제약을 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방울토마토농장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전남 강진군 성전면의 드넓게 펼쳐진 논과 밭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온실이 있다.
청년 농업인인 강진범 대표가 운영 중인 방울토마토 농장으로
모두 3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중범 대표는 이곳을 '싱글 범글 농장'이라고 부른다.

교육기관 _ 전라북도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기간 _ 2019년 9월 ~ 2022년 6월
주소 _ 전남 강진군 성전면 성전리 58
주요품목 _ 방울토마토
농장운영현황 _ 자가 / 800평(3연동)

새콤달콤 방울토마토 맛보실래요 *
준비된 청년 농업인

김중범 대표



준비된 청년 농업인 김중범 대표를 만나다

서른 살의 젊은 청년 강진범 대표가 일귀가고 있는 토마토 농장을 찾았다. 찬바람이 매섭던 바깥 날씨에도 불구하고 반팔 티셔츠만을 걸친 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그와의 첫 대면은 그렇게 꽤나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가진 이 젊은 청년은 '왜 보통의 또래들과 다른 삶을 선택했을 까?'라는 궁금증이 드는 순간이었다.

이에 질문했다. "왜 농업이었냐고?"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던 그는 "처음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미국의 유명 금융가인 '짐 로저스(Jim Rogers)'가 강조했던 '농업이 미래다'라는 짧은 문구 하나를 발견한 뒤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했으나, 농업에 대한 다양한 조사 및 활동을 통해 영농에 대한 깊은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라는 진중한 대답을 돌려줬다.

사실 이런 강진범 대표는 이미 준비된 농업인으로서, 학사과정을 일반 원예과학으로 마쳤고, 이후 석사과정을 통해 스마트팜 및 식물공장 운영과 채소 조직배양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논문을 발표할 만큼 조예가 깊은 전문가다.

이 밖에도 국내 정규 및 호남권 원예학회와 각종 R&D 연구 사업들에 참여하는 등 농산업의 다양한 트렌드와 향후 주요 발전방향 등을 직접 경험하며 농산업에 대한 시야를 확장해왔다.



알바트로스처럼 멀리 날기 위한 준비를 하다



김중범 대표가 생각하는 농업은 단순 운영이나 소득을 얼마 나 내는지 등에 머물지 않는다. 풀어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높고 멀리 나는 새 알바트로스(albatross)처럼 보다 장기적이고 넓은 안목으로 바라보고 연구할 수 있는 농업으로, 이러한 그의 탐구하는 자세는 농산업을 가지고 있는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시선의 확장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는 다시 세계가 처한 인구와 자원의 문제로 인해 재주목 받고 있는 1차 산업인 농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연계됐다. 이에 김중범 대표는 “영농 후계자부터 대학원생으로의 진학까지 다양한 국내·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농산업의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거기서 더 나아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 참여해 교육을 받음으로써 본격적으로 농업인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라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는 모습이다.

한편 그가 강진군에서 영농을 영위할 수 있었던 계기는 일찌감치 귀농해 활동하고 있던 부모님 덕분에 근처에 부모님 농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김중범 대표에게 분명한 이점으로써 자립하기까지 꽤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경제적 지원은 없었고 영농 창업 시 필요했던 자금조달 부분 등을 비롯한 각종 사업 유치는 모두 스스로 진행하는 등 현재까지도 가족종이 아닌 독립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웰빙을 추구하는 문화의 확산을 예측하다

싱글범글의 주 재배작물은 방울토마토로 이는 웰빙을 추구하는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을 예측한 김중범 대표 스스로의 선택이다. 실제 토마토는 세계 과채류 중 재배면적과 소비량이 꽤 많은 편에 속하는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건강을 위한 먹거리로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작물 중 하나다.

이에 김중범 대표는 “다양한 문화와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웰빙 식단, 간편 채소, 다이어트 식품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방울토마토가 이에 적합한 채소라는 것은 부정할 부분이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국내 연간 토마토 소비량은 2000년에 6.7kg/1인, 2010년 8.0kg/1인, 2015년 8.8kg/1인으로 평균 연간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그에게 좌충우돌하며 겪었던 영농생활의 추억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그는 자신이 수확한 토마토를 첫 출하했을 때의 기억을 꼽았다. “첫 출하 때 걱정 반, 기대 반이었다. 그런데 웬걸 생각보다 높은 가격이 책정되면서 머리둥절하기도 했으나 책임감도 그만큼 커졌다.”라는 믿음직한 답변을 들려준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그때의 감동과 두근거림을 잊지 않고 토마토 재배에 온정성을 쏟고 있다.



현장은 준비한 자의 것

대학시절부터 보육사업까지 다양한 경험으로 중무장한 그는 농사에 어느 정도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막상 일을 벌이고 내니 걱정과 두려움이 동시에 찾아왔다. 그때 큰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보내준 부모님과 여자친구의 응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밖에도 그의 영농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준 여러 동료들과 선배들, 그리고 교육 강사와 교수 등도 그의 홀로서기를 위한 큰 자양분이 되어 주었다.

여기에 그의 꼼꼼함이 더해지면서 아직 이른 결론이기는 하나 오늘날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가계부를 작성해왔고 그 일을 여전히 습관처럼 지속해 오고 있다. 성인이 되어 대학에 진학해서는 사업계획서 작성과 각종 농업지원정책을 알아보고 조사하는 등 성실함은 지금 그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되어 주고 있다.

이런 김종범 대표는 무자본으로 창업을 시작했다. 다만 영농 창업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미리 산정하기 위해 시설공사 업체 선정, 부대시설 견적, 공사 완공일 등 필요한 모든 과정을 계획 후 '청년창업농(후계농)' 융자금액과 각종 지역 지원 사업, 청년 지원 사업 등을 사전에 파악해 사업 예산에 반영하였다. 이 같이 꼼꼼하게 과정을 겪다 보니 영농 과정에서 큰 어려움 없이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에 그는 "영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 사례, 상황 등을 파악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영농을 꿈꾸는 청년들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조언한다.



농업, 청년창업!
정말 기대되는
스마트팜!



제 영농 경영모토는 기본에 충실할 것



김중범 대표는 자신의 작물을 최상의 상태로 키워내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환경, 양수분 공급 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정밀 농법을 실현하고 있으며, 그가 실현 중인 정밀 농법은 최적의 조건을 지키기 위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기본에 충실한 재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공배지에 작물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적절한 양수분을 공급할 뿐 여느 영양제나 미생물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의 행동은 일절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그의 경영 모토인 '기본'이라는 철칙이 여기에도 어김없이 적용된다. 또한 데이터의 축적도 그의 스마트팜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써, 매년 변화무쌍한 이상기후 등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런 그에게는 큰 꿈이 있다. 그 첫 번째는 대규모 생산 단지를 구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단순 생산 단지가 아닌 기업화된 영농으로 키워내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 특산물 하면 토마토가 꼽힐 수 있도록 만들고 알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게 그의 바람이다.



싱글벙글 김중범 대표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 참여하게 된 사유는?

A 영농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지식과 현장 경험을 습득하고자 지원하였으며, 수료 이후 지금조달 및 운용이 용이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참여했습니다.

Q 스마트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A 농업에 무궁무진한 비전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양한 농업활동 및 현장견학 등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영농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

2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특별한 추억은?

A 특별한 추억은 아니지만 농업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만나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주로 아직 배울 것은 너무나 많고 만나야 할 사람 또한 너무 많다고 느낌). 따라서 농업을 단순히 작물 재배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로봇공학 전공자가 농업을 공부하여 접목 후 관련 사업을 추진하거나, 스마트팜 시설공사 업체를 설립하기 위해 농업의 지식을 습득하려는 사람, 그리고 농업에 전념하기보다 농업 종사자를 모으고 본인은 유통과 마케팅에 중점을 두고 법인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통해 얻은 결실이 있다면?

A 농업 전공자로서 전공수업을 통해 전문지식을 배운 것과는 달리 보육사업에서는 현장과 이론을 병행하며, 이론에서 배운 것을 즉시 현장에 적용·검토함으로써 보다 이해도가 높고 실용성이 높은 교육이 인상에 많이 남았습니다. 또한 교육 종료 후 끝낸 일반적인 타 교육과 달리 교육 종료 후 사후 관리를 통해 전문 컨설팅, 지속적인 정보교류 등은 영농창업 초기 자립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Q 청년 농업인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귀띔해주고 싶은 tip이 있다면?

A 지금의 농업은 단순한 생산 산업을 넘어선 과학 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지식, 경험, 정보를 모아 창업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실패의 위험이 크고, 그에 따라 본인의 노력 대비 결실이 낮을 경우 좌절감에 의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준비과정 중에 본인이 실제로 할 수 있는지 먼저 냉철하게 분석하기를 권장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견학과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본인이 영농을 실행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한 후 실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영농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과 투자금으로 인해 차마 포기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신 분들을 많이 봤음).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 과정에서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A 교육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크게 없다고 생각되나 꼭 한 가지 적어야 한다면, 구두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듯이 작물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스마트팜 투자 대비 수익성을 고려하였을 때, 단순한 교육문제가 아닌 국가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스마트팜 관련 자재의 보편화와 농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오이농장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한적한 대로를 따라 한참을 달리다 보면 만날 수 있는
남해읍 시내. 거기서 약 5분여를 더 달리면
비로소 변진우 대표가 경영 중인 농장과 마주할 수 있다.
그의 농장은 작은 마을 맞은편 아담한 산과 작은 개울이 흐르는
고즈넉한 풍경과 어우러져 있다.

교육기관 _ 경상남도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기간 _ 2018년 4월~2020년 12월
주소 _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대정리 483-1번지
주요품목 _ 백다다기, 가시오이
농장운영현황 _ 임대 / 198평

남해에 어울려
살어리랏다
변진우 대표



지금까지
이런맛은
없었다!



스마트 그리드 전문가 농업의 가능성에 눈뜨다

전기공학을 전공한 변진우 대표는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전문가로, 스마트 그리드란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을 말한다. 이런 그가 '스마트팜'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에너지 독립 분야를 공부하던 중으로, 대형 공장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던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 1차 산업인 농업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다.



이후 자연스럽게 스마트팜 교육과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면서 스마트 팜에서 기본이 되는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등의 작물을 경험했다. 이후 그는 도전적인 성격 탓으로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오이를 자신의 주 재배작목으로 선택했으며, 이에 대해 "저는 한국에서 사례를 찾기 힘든 오이의 스마트팜 모델을 실습 기간 동안 자체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라며 환하게 웃어 보인다.

이는 어쩌면 그만큼의 이유 있는 자신감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실제 그는 재배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오이에 대해 연구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는 육성 방법을 선택해 키움으로써 꽤 괜찮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매출보다 재배 기술과 판매 경로에 힘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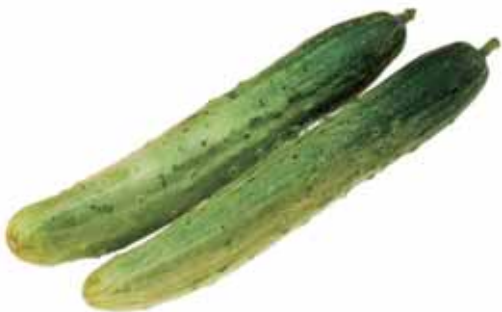
여전히 초보 농부인 변진우 대표는 198평 규모의 임대 농장을 운영 중으로, 다른 교육생들의 농장들과 비교하면 다소 작은 수준이다. 하지만 그는 “매출보다는 재배 기술과 판매경로 확보를 우선으로 경험을 쌓는 데 주력하고 있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라는 의견이다.

이어 그는 “오이의 경우 조직이 약하여 병충해에 취약하다는 점과 성장 속도가 빨라 수확기 작업량이 많다는 점을 사전에 숙지하였고, 교육 실습 기간 동안 미리 예상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사전 준비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면서 프로 농사꾼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역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의 적극적인 지원도 그에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이런 그는 수원이 고향이다. 경기도 중에서도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직접적으로 농업 현장을 접하거나 경험하는 게 쉽지 않은 지역이다. 따라서 이론교육부터 경영 실습까지 농업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 전반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농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생긴 예상치 못한 난관은 없었다.”면서 “입문 과정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전문가분들이 실습 기간인 1년 동안 재배 컨설팅 및 경영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현장으로 나아갈 즈음에는 준비된 농업인이 되어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며 보육사업 전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나를 돌아볼 수 있었던 탐구의 시간



자신의 꿈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확실한 방향성을 찾아 나아가고 있는 변진우 대표는 지나온 3년을 탐구의 시간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스마트 팜을 통해 도시 청년이 시골에서 얼마나 멋지게 정착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고, 물질적 풍요와 노동시간의 개선을 통해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이바지할 수 있는 농장을 만들고 싶다.”라는 나름의 포부를 전하며 지역에 동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변진우 대표는 농장의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고려해 남해를 기점으로 경남 전역으로 농장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 중인데, 다양한 시설 채소를 재배하여 체험까지 가능한 6차 산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농장을 고려 중에 있다.

한편 현재 그의 농장에서 구현되고 있는 스마트팜 기술들 중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Data 농업’으로, 영농 초기



남해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



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를 이용해 작물의 재배부터 판매까지 일련의 경험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자신의 노하우로 만들었다.

또한 "청년 창업농을 하고 있다면 '농업 ON'에서 제공하는 영농 일지와 입출금 장부 사용이 생각보다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에 농장 경영에 도움이 된다."면서 후배 농업인들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가 남해에 내려온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즈음이다. 임대 농장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옷 몇 벌만을 챙겨 무작정 내려와 온실 외부에 놓인 컨테이너에서 늦가를 추위와 씨름하며 숙식까지 해결했다.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 현장을 우선 느끼고 체험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변진우 대표의 사정을 알게 된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팀장이 마을 어르신들의 농가를 소개해 주었고, 변진우 대표는 보다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후 젊은 외지인이 자신들의 마을로 이주해 정착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라는 소식이 마을에 알려졌고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져 갔다. 이에 그는 "월세 계약으로 들어가게 된 농가주택의 주인집 할머니께서 감사히도 먹을 것 등을 챙겨 주셨는데, 받기만 하기엔 죄송스러운 마음이었다. 그래서 직접 키운 작물 등을 나누어 드렸고, 하루에 몇 번을 뵈든 간에 어르신들에게 인사드리길 마다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이 경험한 긴 정착기와 경험을 나눴다.

이처럼 그는 차근차근 귀농과 경영을 몸소 배우고 실천하며, 프로 농업인으로 성장 중이다. 이러한 그의 성공적인 정착 과정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동생도 현재 스마트팜 교육에 참여 중이다. 따라서 형제농의 탄생을 기대해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변진우 대표는 "함께하는 파트너가 있다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이다. 또 그것이 가족이라는 사실에 더욱 든든하다."라며 경영 실습 기간 동안 옆에서 돕던 동생이 확신을 가지고 보육사업에 도전하게 되었다는 의미 있는 소식을 전했다.

생명을 키워내는 만큼 챙길 것도 많죠



변진우 대표는 총각이지만 작물들을 키우고 출하하기까지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감히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참을 나는 대화에서 그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공감이었다. 또한 그는 “농업은 생명을 키워내는 작업이기에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공산품들과 비교했을 때 환경의 영향이 큰 분야다. 따라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게 농업이다.”라며 전문가적인 성숙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의 농장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198평으로 작은 온실이다. 따라서 대형 온실과 비교해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일 평균 70~80kg의 오이를 생산한다. 경제적 수치로 계산해 보면 일 10만 원 정도의 수익이다. 하지만 그는 “청년 창업농에서 지원받는 바우처를 함께 활용하기 때문에 생활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이다. 이어 “아직은 적은 수익이지만 그 수익을 바탕으로 측정기, 현미경 등과 같은 기기를 구매해 재배 기술과 관련한 데이터 베이스 확보를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에 적극 활용 중이다.”라며 환한 미소로 대답한다. 얼마 전에는 8TB 용량의 개인 서버도 구축했다고.

한편 판로 및 유통에 관심이 많은 그는 현재 공공급식 사업과 농협 하나로마트의 로컬푸드 매장 외에도 도매로 판매처를 확장 중이다. 도매의 경우 진주 도매시장이 주 판매처다. 한편 그는 현재 상황에 대해 “계약재배, 소포장 직거래, 도매 판매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 있으며, 향후 농장의 규모가 확대되어 안정적인 생산량이 확보될 경우 현재의 오프라인 판매 외에도 스마트 스토어 같은 온라인 판매도 함께 시도하고 싶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이런 그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다. 우선은 1인 영농활동과 사업이 경험상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따라서 융합 기술인 스마트팜 분야의 선도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일해보고 싶은 것이 바람이자 계획이다. 따라서 현재 스마트 팜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장소도 물색 중이다. 그래서 그는 매일이 향기롭고 행복하다.



변진우 대표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 참여하게 된 사유는?

A 교육사업의 의도와 교육 내용이 저의 방향과 맞아 지원했습니다. 미래를 선도할 기술은 융복합 기술이고 그것이 농업에서는 스마트 팜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의 경우 창설의 도가 도시 출신의 비농업인 청년을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농정원 주도 사업이라는 것에서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사업임에도 믿을 수 있었고 1년 9개월을 성공적으로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Q 스마트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A 공학도(전기, IT)였던 제가 농업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스마트 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의 체계적인 교육으로 농업 분야를 이론부터 현장에서 경영훈련까지 마친다면 이를 막연한 생각이 아닌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생겼습니다.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특별한 추억은?

A 이론교육 기간인 5주 동안 전북, 전남 교육센터를 방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2018년 교육과정은 이론교육이 지역별로 전북 전남 경남 별로 세 교육기관이 담당했었습니다. 지역별 교육 내용과 진행되는 사항을 알기 위해 다른 두 지역의 교육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해당 지역의 교육생들과 같이 교류하고 교육담당자분의 안내도 받았는데 서로 다른 지역 교육생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 저와 행동을 같이 한 두 교육생에게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통해 얻은 결실이 있다면?

A 스마트팜 기술 이외에도 문제 해결 능력을 얻게 된 점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17기 교육과정이라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지만 이번 사업의 경우 교육을 완성해 나가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제일 큰 어려움은 기약 없는 시간의 지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통하여 그동안 잠시 놓고 있었던 전기기술과 IT 기술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이 과정 덕분에 경영 실습이 다시 재개되는 순간에 흐름을 놓치지 않고 준비된 실습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실습이라는 틀이 있지만 직접 경영을 진행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스마트 팜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Q 청년 농업인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귀띔해주고 싶은 tip이 있다면?

A 교육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인연들이 정말 소중한입니다. 좋은 관계는 소중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년 동안 영농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의 경우 경남 교육센터 분들 남해군 기술센터 분들 서호마을 분들과 가까이서 저의 가족 등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관심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 이웃들과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 과정에서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A 이론 교육 기간 중에도 실습하는 작물을 볼 수 있게 하여 학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영농경험 없는 사람의 경우 식물 관련 지식이 적어 농업 용어로 설명한 기관과 실제 식물의 기관을 접목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토마토농장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역사의 고장 경주시 강동면에 정승훈 대표가 운영 중인 '한빛 가람 농원'이 있다.
약 1,800여 평에 달하는 그의 농장엔 빨갛고 탐스러운 토마토들이
그의 정성과 굵은 땀방울로 하루가 다르게 영글어가고 있다.
이에 그가 써 내려가고 있는 조금은 비밀스러운 희망일기를 들여다보았다.

교육기관 _ 경상남도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기간 _ 2018년 4월 ~ 2020년 6월
주소 _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현로 1936-151
주요품목 _ 토마토
농장운영현황 _ 자가 / 약 1,800평

보다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으로
한빛가람농원
 정승훈 대표



다양한 직업 거쳐 어엿한 농업인으로 변신

정승훈 대표는 귀농 직전까지 기자로 활동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지역 일간지 사회부 기자로 치열하게 일하며 주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을 출입했다. 그리고 그 이전엔 고고 학도였던 전공을 살려 긴 시절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박물관 협회 등에서 일하기도 했다. 어쩌면 땅이라는 주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 지금은 연간 55톤의 토마토를 생산하는 어엿한 농부로 변신했다.



이런 정승훈 대표는 스스로 농업이라는 낯선 분야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그저 '주체가 되는 삶은 살고 싶어서였다.'라고 말한다. 주체가 되는 삶이란 그에게 어떤 삶이었을까? 이에 그는 독일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가 말한 '하루의 3분의 2를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은 노예다'라는 명언을 예로 들며, "그의 말처럼 전부를 따를 순 없겠지만 3분의 1만이라도 노예로 살고 싶지 않았고, 그 턱없는 욕망에 대한 해법이 농업에 있으리라 생각했다."라며 농업에 접근한 자신만의 철학이 가득 담긴 사연을 전했다.

이처럼 남다른 시각과 도전정신으로 농업인으로서의 변신에 성공한 그는 첫째 대추방울토마토만 55톤을 생산했고 2억 4천만 원이라는 수익을 올렸다. 이듬해에도 2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으나 상시근로자가 3명 정도 필요했으며,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는 한여름에는 추가 일용직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인력난으로 고생한 경험도 여러 번이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토마토



정승훈 대표는 스마트팜 교육 과정에서 다양한 작물을 경험한 뒤 자신의 주 재배작물로 토마토를 선택했다. 이는 우리 식탁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을 작목 중 하나가 토마토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역설적으로 보면 많은 경쟁 농가들이 있을 것이고, 큰 성과나 대단한 수익을 기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 하지만 그는 “만약을 가정했을 때 꾸준한 수요가 있으니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손실까지 입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면서 “또 정식에서 출하까지 과정이 타 작물에 비해 비교적 단기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고, 결정적으로 재배 난이도 또한 그리 높지 않다는 장점이 토마토를 선택하게 된 계기였다.”라며 자신의 결정에 확신하는 모습이다.

한편 스마트팜 교육과정을 먼저 경험한 그는 가장 유용했으며, 지금도 활용이 가능한 ‘실습교육’을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으로 손꼽았다. 다만 1기 교육 당시 임대형 실습농장이 마련되지 않았던 부분은 다소 아쉬웠던 부분으로, 후배들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교육과정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이 밖에도 “장기간의 실습과정 중간중간 이론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라는 아이디어를 내며 스마트팜 보육사업에 대한 나름의 애정을 드러냈다.

정승훈 대표
2020년 11월
노화방지에
좋은 영양만점
= 토마토 =



농업인과 소비자가 주인 되는 농업 선진국 되길 바라



한빛 가람 농원 정승훈 대표는 농업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 등의 유통과 경매 시스템에 꽤나 관심이 높다. 그 이유는 다소 비효율적인 국내 유통시스템으로 농가들이 부득이한 손해를 입는 경우가 다반사로,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현행 경매제는 유통비용이 많이 들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폐기됐으나, 유독 한국에서는 지난 1980년대 도입된 경매거래가 여전히 농산물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고 이에 그는 “그 핵심에는 독과점 수탁이라는 진입장벽을 세우고 막대한 이익을 보장받는 소수의 도매시장 법인, 소위 ‘청과회사’가 자리한다.”면서 “결국 농민은 얼마에 팔릴지도 모르는 ‘깜깜이 출하’를 거듭하고, 소비자는 날마다 널뛰는 가격에 지갑을 여닫는데 농업과 관련도 없는 청과회사 주인들의 배만 불리는 형국이다.”라는 따끔한 충고를 남겼다.

한편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되는 ‘시장도매인 제도’ 역시 뚜렷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농민을 완벽히 배제한 채 농산물의 가격을 단 몇 초 만에 결정하는 경매제를 이제는 손보아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라는 확고하면서도 명쾌한 분석을 통해 우리에게 산재한 과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안겨줬다.

농촌에서 꿈꾸고 농업에서 이룰 수 있길



한빛 가람 농원은 전반적으로 잘 정돈된 시설과 어디 하나나 무랄 곳이 없는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는 정승훈 대표의 성격 때문이기 한데, 기존의 스마트팜 관련 시설부터 본격적인 출하 시기 때의 물량을 대비해 준비해둔 자동 분류기에는 먼저 하나 발견하기 어려울 만큼 잘 정돈된 모습이 꽤 인상적이다.

이런 그가 농장의 경영에 있어 생산만큼이나 신경 써 관리하는 부분은 바로 유통과 판로 관련으로써, 현재까지는 대부분을 공판장에 출하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초부터 온라인 판매채널을 구축해 운영 중으로 향후 온라인 판매에 더욱 주력해 판로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공 등을 통한 상품군도 늘릴 계획으로 “연중 당일 배송이 가능하도록 인근 농가들과 협의에 나설 생각이다.”면서 “단순히 수취가를 높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스칸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다.”라며 또 다른 계획을 귀띔했다. 이는 농민이 대형 유통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현상이 더 이상 지속되면 안된다는 그의 단호한 판단으로, 현실과 기존 경매제에 균열을 내기 위해서라도 직거래나 온라인 마켓은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은퇴 후가 더 멋진 농업인 되고파



현재 정승훈 대표의 아내는 고고학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이며, 불가피하게 월 말 부부로 지내고 있다. 이에 함께 농업경영을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그는 '계획에 없다'는 답변을 들려줬다. "다만 학예 사인 아내가 은퇴 후 농장 인근에 '우리 마을 농부 박물관과 같은 이색적인 공간을 짓고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있다."면서 웃어 보였다.

그가 생각한 공간은 철근콘크리트 1층 2종이 아닌 비닐하우스나 폐창고를 체험과 전시가 가능한 공간으로 꾸며 소비자 또는 농촌을 찾는 이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편안하면서도 유익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이른테면 이즈음 유행하는 온실 카페나 미곡창고 카페의 박물관 버전일 듯한데, 아직 까진 막연한 꿈 정도다."라며 부연 설명을 이어갔다. 이런 그의 꿈이 꼭 이뤄질 수 있길 바라고 응원하고 싶다.

또 그는 농장을 경영하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2, 3, 4기 교육생이 모두 자신의 농장을 거쳐 간 것을 꼽았는데, "의도치 않았던 경험으로 기수별로 길게는 몇 달, 짧게는 한 달 정도를 나와 같이 일했다."라며 "그들의 이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고 넉넉하게 챙겨주지 못해 지금도 여전히 미안하고 송구할 뿐이다."면서 미래를 함께 응원했다. 이처럼 그는 냉철함과 따뜻함을 겸비한 농업인이다. 이에 기대해 본다. 그가 만들어갈 내일과 모두 함께 꿈꾸는 행복한 농업환경이 보다 빨리 터닝포인트를 맞이할 수 있길 말이다.



한빛가람농원 정승훈 대표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 참여하게 된 사유는?

A 영농 이력이며 경험이 전무했음에도 창업을 결심한 만큼 집중적인 전일 '폴타임'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하면서도 한계를 절감하던 무렵에 마침 교육생 모집이 공고됐고 비교적 장기간인 교육기간, 이론과 실기가 결합된 커리큘럼 등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참여했습니다.

Q 스마트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A 앞서 전전한 몇몇 직업들에 특별한 재능이 없었던 탓이 가장 크다는 생각입니다. 정직한 직업, 무해한 방법이라 생각하기도 했고, 초짜 배기로서 스마트 팜에 눈이 갔습니다.

2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특별한 추억은?

A 실습 교육의 일환으로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지역에서 여러 농장 등을 둘러본 8박 9일 일정의 해외연수가 기억에 남습니다. 여행사 패키지 상품이 아니다 보니 이색적인 여정이었고 그만큼 신선했고요. 코로나19로 인해 17만 누렸던 혜택인데, 팬데믹이 종식되면 다시 개설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통해 얻은 결실이 있다면?

A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는 몇몇 동기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Q 청년 농업인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귀띔해주고 싶은 tip이 있다면?

A 세 가지를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업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한 작기, 시간이 허락한다면 1~2년은 현장에서 '삼머슴'처럼 일해보고 작목이나 사업 형태 등을 정하기 바랍니다. 핵심이라 할 재배기술부터 소모성 자재 구입 등 사소한 사무까지 '농업경영'을 가장 빠르고 손쉽게 체득할 수 있는 길입니다. 특히 스마트팜 신축처럼 상당한 초기 자금이 필요한 창업농이라면 그 기간이 길수록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이나 농업관측정보 따위에서 가져온 숫자를 계산기로 두드리며 영농 계획을 짜는 일은 어리석고 위험하다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역량이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반영되지 않은 숫자는 반드시 배신하기 때문이죠. 보다 촘촘한 '플랜 B'나 출구전략이 필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뉴스나 보도자료를 그대로 믿지 말길 바랍니다. 대박 맛집만 다녀보고 식당을 개업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 세 가지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고,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 과정에서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A 다른 교육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농대 명예교수인 강사가 4시간가량의 교육 시간 내내 스마트 팜의 문제, 청년 창업농의 취약성을 역설했습니다. 농식품부나 농정원은 그 반대편에 있는 듯합니다. '청년농 유입'과 '스마트팜 확산'에 매몰됐는지 무책임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런 인터뷰나 사례집도 마찬가지죠. 최소한 우호적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데, 계속해서 반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데블스 애드버킷'이나 닥터 돔(비관론자)이 필요합니다. 선도농가만이 아니라 '평균농가'도 찾아야 하고요.



딸기농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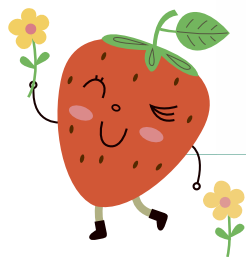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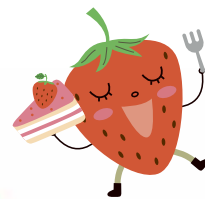
세종시 부강면



매일이 행복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다. 외국 금융계에 종사하다 돌연 농부가 되겠다고, 미래가 보장된 직장을 박차고 나와 농부가 되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는 진주리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이에 왜 그가 농업에 주목했고, 또 그가 생각하는 농업의 내일은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교육기관 _ 전라북도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기간 _ 2019년 7월 ~ 2021년 6월
주소 _ 세종시 부강면
주요품목 _ 딸기
농장운영현황 _ 자기농장 준비 중

매일 성장하는 꿈을 꾸니다
긍정 아이콘
 진주리 대표



당찬 그녀 농부가 되다

도시에서의 일반적 삶이 대부분 그렇듯 만원 버스와 지하철에 몸을 맡긴 채 직장 과 집을 오가며 쳇바퀴 같은 일상을 보내던 진주리 대표는 남모르게 농부가 되기 위한 소중한 꿈을 키워 왔다. 젊은 여성이 그것도 미래가 보장된 직장을 뿌리치고 농부가 되겠다는 생각은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나, 그는 결국 자신의 결심을 실천에 옮겼고 지금은 당당히 자신의 농장을 짓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이에 그는 "어쩌면 제 성격 때문일지도 모르다. 늘 바쁘고 활기차게 살아왔고 또 그런 삶에 스스로 만족해왔다"라며 농업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선택한 스스로를 대견해 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농업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도시에서의 삶과는 또 다른 바쁨의 연속으로 날씨와 기온 등 다양한 변화에 맞춰 능동적으로 살아야 하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적 변화는 진주리 대표에게 또 다른 삶의 이유가 되었고, 지금은 농업의 미래를 고민할 만큼 어엿한 프로 농업인으로 성장 중이다.

현재 그는 신선 편의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부강 푸룻(BUGANG FRUIT)'이라는 브랜드를 경영 중인 대표이기도 하다. 부강 푸룻은 세종시 부강면에 위치해 있고 또 자신의 야채와 과일을 찾는 소비자들이 모두 부유하고 건강해지길 바라는 그의 소망이 담긴 브랜드다. 아직은 소규모 사업장에 불과한 부강 푸룻은 향후 농장이 완성되면, 보다 전문적이고 완성도 높은 브랜드로 키워간다는 게 그의 계획이다.



자신과 잘 매칭되는 작물 선택이 중요



스마트팜 보육사업을 마친 그는 현재 개인 농장을 준비 중
에 있다. 이를 위해 부지 선정과 작물에 대한 공부도 열심이며,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인적으로 자금 계획을 수정하는
등 서두르기보다는 더욱 철저하고 신중히 결정하려고 노력 중
이다.

그가 이처럼 자신의 농장 준비에 신중한 이유는 시설비에 대
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며, 유통
시장을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으로 "코로
나19 이후 판로가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생산에 관련해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농기평에서
진행하는 사후 컨설팅을 받으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한편 그가 고려 중인 작물은 딸기로 동남아로 수출하고 있을
만큼 품질적인 부분에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
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며, 경영 실습 교육과정에서엽채류,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그린 빈 등을 경험했다. 이런 그가 결정
적으로 딸기를 선택한 이유는 자신이 좋아하는 작물일 때 그 시
너지가 더욱 크게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한몫했다.
실제 그는 딸기라는 식물을 접하면서 그 달콤한 향에 힐링이 되
는 느낌을 받았고, 스스로에게 타 작물과 비교 시 성장적인 부분
에서도 잘 매칭이 되었다고.

농업은 청년들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 맞습니다



오래전부터 두바이를 비롯한 다양한 해외 경험이 많았던
진주리 대표는 이론 교육 중 관수를 교육했던 최기영 교수가
UAE(United Arab Emirates)에 한국형 스마트팜 작물 재배 과
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견학에 참가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최기영 교수는 흔쾌히 허락했고 아부다
비(Abu Dhabi City)의 알 아인(Ai Ain) 지역에 건설 중인 현장
을 방문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현지 담당자들과 다양한 의견
을 교류하기도 했다.

진주리 대표는 이 과정에서 우리 농산업에 대한 또 다른 가능
성을 발견했는데, UAE 현지인들과 알 아인 지역과 국경이 맞닿
은 오만(Oman) 농장주들이 한국형 스마트팜 시설에 큰 관심을
보였던 것 이에 진주리 대표는 "현지에서 온실 리모델링과 생산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받고 싶어 하는 수요가 많다는 사실을 알
게 됐다"라며 당시를 설명했다.

한편 진주리 대표는 해외 견학 후 우리 농산업의 또 다른 가능
성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것은 바로 젊은 청년 농업인들의 해외



진출이다. 농산물의 해외 판로 또는 진출에 대한 이야기는 종종 들어본 적이 있으나, 인력의 해외 진출이라니 다소 생소했다. 이에 그는 “우리가 한국에서 먹어본 과일과 야채는 해외에서 먹은 어느 농산물보다 당도나 품질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따라서 우선은 청년인 우리가 생산한 신선 농산물을 직접 수출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토종 기술로 스마트 팜을 해외에 짓는 일도 수출이고, 생산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도 수출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속 깊은 생각을 전했다.

“짧은 경험과 견해로 다듬어진 생각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기술과 자재로 지어진 ‘한국형 스마트팜’에서 또 하나의 경쟁력은 ‘청년보육 사업을 수료한 재배사’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스마트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되면 어떨까 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희망을 걸다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농업에 대한 꿈을 펼쳐오고 있는 그에 게도 난관은 있었다. 그중 자금과 관련한 문제는 가장 풀기 어려운 과제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나 작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보다 주력하고, 또 신중히 준비해 자신에게 알맞은 농장을 마련하기로 방향을 재설정했다.

반면 “저 스스로 농업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더 좋은 세상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스마트 팜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의젓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가 결국 희망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는 그가 강조하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옛말과 연결되는데, 우리 인류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경험하면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크게 고민하고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스마트 팜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에 그는 “원활하게 수입했던 식품이 코로나19로 생산이 어려운 나라가 있고, 선적할 배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었다. 또 공급망이 무너져 수입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물가가 올라가 우리가 흔히 먹던 것을 사는 기본적인 장바구니 비용도 올라간다. 시장이 바뀌고 있다. 이때 많은 기회가 가능성이 생긴다. 농사는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이 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옛말이 다 맞는 말이다.”라며 부연 설명을 덧붙였다.

재배사 교육 서비스와 컨설팅 플랫폼도 계획



진주리 대표는 단순히 농업 경영인을 넘어 해외에 이어지는 '한국형 스마트팜'을 수출할 때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재배사 교육 서비스 및 컨설팅의 플랫폼'에 관련한 일을 단계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매일 수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행하는 상황이지만, 온라인 화상회의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전문가 강의를 듣고, 수출을 위한 화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다.

또 자신과 같이 농작물 생산 이외에 다른 직업군을 경험하고 농업 분야로 뛰어든 청년들이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과 융합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진주리 대표는 이루고 싶은 꿈도 일도 많은 귀여운 욕심쟁이다. 그리고 이 같은 그의 바람은 결코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다. 이에 다시 한번 그의 내일을 멀리서나마 응원해 본다.



진주리 대표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 참여하게 된 사유는?

A 스마트팜 농장은 온실 안에서 작물을 연중 내내 생산한다는 것을 찾아보게 되었고, 토마토 딸기 업체류 같은 생산물의 공급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농사를 잘 짓는 농가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농가들과 끈끈한 네트워크를 갖고 싶었고, 작물 생산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면 출하 시기에 따른 시세의 움직임도 잘 이해될 것 같았습니다. 이는 추후 신선 편의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데도 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Q 스마트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A 신선 편의 공장에 대해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터라 자연스럽게 스마트 팜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론교육을 거쳐 교육실습, 경영 실습교육을 통해 직접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고추 등의 생산을 배우면서, 팀에서 동기생들이 생산하는 것을 지켜봤고 식물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이와 함께 처음 이론 교육을 받으면서는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전에는 유통 판매 마케팅적인 생각 외에는 생산 관련 분야에 대해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북 농식품 인력개발원 강사님들이 어려운 부분도 알기 쉽게 잘 알려주셔서 스마트 팜에 대해 더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스마트 팜은 시설을 짓는 비용이 들다 보니 작물 선택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력을 대체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온난화와 이상 기후에 적응하려면 좋은 온실을 짓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특별한 추억은?

A 이론 교육을 하면서 집이 먼 교육생 동기들과 합숙을 하게 되었는데, (코로나19 이전이라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운이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도 함께 하고 저녁 식사 후에는 교육 때 배웠던 것에 대한 토론도 하면서 진한 우정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후 임실에 있는 청년 스마트팜 시설에서 교육형 실습, 경영형 실습도 같이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임실에서 진행했던 실습장에서 '팜 파티'를 열어 군수님, 전북 농식품인력개발원, 동네 주민분들 모시고 저희 실습장에서 조그마한 성과 발표회를 열었던 것도 소중하고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통해 얻은 결실이 있다면?

A 첫 번째는 같이 교육받은 교육생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점, 두 번째는 농산업을 하는데 교육받았던 강사님들께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게 된 점, 세 번째는 토마토, 딸기 작물에 대해, 스마트 팜에 대해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Q 청년 농업인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귀띔해주고 싶은 tip이 있다면?

A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 청년이 농업을 배우기에 적당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청년만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나이에 상관없이 도전하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많이 고령화되어 앞으로 더 많은 청년이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의 밝고 힘찬 에너지로 우리나라 농업을 젊게 바꾸어 가면 좋겠습니다.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 과정에서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A 전북 농식품인력개발원의 강사님과 담당 주무관님은 농업 분야의 최고 실력자들입니다. 제가 교육과정도 다 끝나고 드는 생각인데, 강사님들의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하는데 많은 실습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은 다 지어졌지만(저희 2기 교육 때에는 완공 전이었습니다.) 이론과 실습을 겸하는 과정을 김제 혁신 벨리에서 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이어 해외 농업전시회(네덜란드 스마트팜 농업 분야의 최고 기술을 갖고 있다 하여 꼭 다녀오고 싶었는데..)를 선진지 견학을 코로나로 인하여 다녀오지 못한 것이 아쉬웠고 농산물 유통, 판매를 잘하는 노하우 수업이 추가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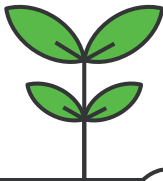




2021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우수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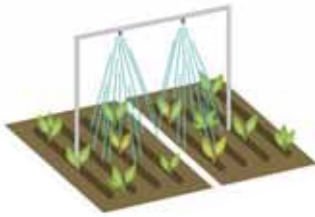
SMART FARM



스마트팜이란?

스마트팜 정의

비닐하우스·축사에 ICT를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



스마트팜의 의의

작물 생육정보와 환경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생육 환경을 조성, 노동력·에너지·양분 등을 절감하여 농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증대



스마트팜 운영원리

생육환경 유지관리 SW(온실·축사 내 온·습도, CO₂ 등 생육조건 설정)
환경정보 모니터링(온·습도, 일사량, CO₂, 생육환경 등 자동수집)
자동·원격 환경관리(냉·난방기 구동, 창문 개폐, CO₂, 영양분 공급 등)



스마트팜 기대효과

- ▶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의 확산은 노동·에너지 등 투입 요소의 최적화된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역할을 수행
- ▶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온도와 습도 등을 최적으로 맞춰주고, 양분 사료 에너지 등은 필요한 양만큼만 투입되기 때문에 생산성은 높아지고, 노동비는 낮아지게 됨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사업개요

- 교육대상** 전공에 관계없이 스마트팜 취·창업 희망하는 청년 104명
*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주민등록상 '81. 1. 1. ~ '03. 12. 31. 출생자) 미취업자 (단, 재학생 또는 취업자라도 20개월 보육과정 중 의무교육시간 이수 가능자는 신청 가능)
- 교육기관**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상주), 경상남도 농업자원관리원(밀양),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김제), 전라남도 순천대학교(고흥)
- 교육혜택**
- ▶ 교육 수강료 전액 무료
 - ▶ 교육 기간(약 1년 8개월, 교육 당일)동안 숙식 제공
 - ▶ 국내·외 우수 현장 전문가의 영농 기술지도 및 컨설팅 지원
 - ▶ 교육 수료생(수행실적 우수자)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우선권 부여
 - ▶ 교육 수료생 대상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 신청 자격 부여
 - ▶ 교육 수료생 대상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 비율 우대

교육생 선발 계획

선정방법

| 1단계 적격심사 | 2단계 서류심사 | 3단계 면접심사 |
|---|---|---|
|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누락 및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서류 심사 대상으로 선정 | 지원동기의 구체성, 창농계획의 적절성 등의 내용을 심사하여 면접 대상으로 선발(최종 합격인원의 2배수) | 스마트 농업에 대한 열정 및 자세, 영농정착 가능성, 친화력 및 소통능력 등을 심사하여 최종 합격자로 선발 |

* 교육생 모집정원의 30% 범위(센터별 16명) 내에서 혁신밸리 지역 거주자 우선선발 가능

신청기간 2021. 4. 28.(수) ~ 5. 31.(월)

신청방법 스마트팜코리아 홈페이지(www.smartfarmkorea.net) 회원가입 후 '스마트팜 교육-보육사업 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교육혜택

창업보육 스마트팜 창농을 위한 이론교육·교육형 실습·경영형 실습 등 전 과정에 대한 보육관리를 통해 스마트팜 분야 핵심 인재 육성(20개월 과정)

| 입문 과정 (27개월, 180시간 이상) | 교육형 실습 (6개월, 480시간 이상) | 경영형 실습 (12개월, 960시간 이상) |
|--|--|---|
| 경영관리(경영·마케팅 등), 시설관리(스마트팜 운영, 온실관리 등), 작물생리, 품목별 재배관리, 현장견학, 전문가 특강 등 진행 | 보육센터 실습온실과 스마트팜 선도 농가 온실 등을 활용하여 현장실습을 진행 * 컨설팅·현장지도, 우수 스마트팜 농가 실습을 통한 경험축적 및 벤치마킹이 가능 | 자기 책임 하에 영농경영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경영실습 온실을 제공, 영농 전 주기별 실습 교육 진행 |

문의사항

스마트팜 콜센터 1522-2911

경상북도 054-531-3754

전라북도 063-290-6434

경상남도 055-254-4754

전라남도 061-286-6492

걱정없이 농사짓고,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살고싶은 농촌,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21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우수사례집

스마트팜

청년 창업



꿈을 이루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